변호사 상담용 사건 요약서

AskLaw · 작성일 2026년 10월 21일 · 고객 입력과 분석 결과를 상담 전에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요약

고객 진술상 혼인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며, 이혼은 미결정이고 별거를 생각 중입니다. 초등학생 연령 자녀를 공동 돌봄하며 공동명의 집 대출을 함께 갚고 있습니다. 최우선은 다음 달 생활비로, 현재 부담자·배우자 소득·주거비가 미확인입니다. 자녀의 주된 생활 장소와 주택·사업 채무 자료 범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도는 의심이며 현재 즉각적 위협은 없다고 합니다.

사건 핵심

- 혼인·현재 생활: 혼인기간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입니다. 현재 생활: 따로 사는 것을 생각 중이에요(고객 응답).
- 자녀·돌봄: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 연령은 초등학생 연령입니다. 돌봄 분담: 함께 나누고 있어요(고객 응답).
- 주거·주택: 현재 주거는 자가 주택으로 입력했습니다. 주택은 공동명의입니다. 주택은 혼인 중 취득했습니다.
- 대출: 대출 부담이 크게 남아 있습니다. 대출을 함께 상환하고 있습니다.
- 월 주거비·그 밖의 생활비: 주거비 외 월 생활비는 100만~250만 원으로 입력했습니다.

보유 자료

- 보유 중인 급여·세금 관련 자료
- 보유 중인 대출·채무 관련 자료
- 보유했다고 답한 자료: 대출·채무 관련 · 급여·세금 관련

쟁점

1. 우선 · 다음 달 생활비의 부담과 확보 가능성
2. 우선 · 자녀의 생활 유지와 돌봄·비용의 조정
3. 우선 · 공동명의 집 대출과 사업 채무의 구분
4. 외도 의심과 과거 폭언의 사실·자료 구분

미확인 사항

- 생활비 부담자
- 배우자 소득 확인
- 월 주거비
- 자녀 거주
- 유지하고 싶은 일상
- 자료 확인 범위
- 그 밖의 미확인 항목 2건은 쟁점별 상세에 있습니다.

먼저 물어볼 질문

1. 이혼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달 생활비의 부담을 어떻게 정하고, 협의가 어려우면 어떤 방법을 검토할 수 있나요?
2. 따로 사는 것을 검토하면서 자녀의 생활과 공동 돌봄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하고, 이혼을 선택할 경우 어떤 양육 사항을 정해야 하나요?
3. 공동명의 주택 대출과 걱정되는 사업 채무에서 계약상 채무자·보증인, 실제 상환, 향후 재산분할 검토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4. 외도는 의심일 뿐이고 과거 폭언의 정확한 날짜도 모릅니다. 이혼 사유나 위자료 책임을 검토하려면 기억과 보유 자료에서 어떤 사실을 구분해야 하나요?

상담 시 유의할 점 외도 의심과 과거 폭언은 고객 진술이며, 현재 즉각적인 위협은 없다고 했습니다. 제공된 근거만으로 이혼 사유·위자료·채무 책임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새로 구체적 위협이 생기면 자료 확보나 대화보다 안전한 장소와 112 등 긴급 지원을 우선해 주세요.

쟁점 1 / 4

다음 달 생활비의 부담과 확보 가능성

검토 질문 이혼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달 생활비의 부담을 어떻게 정하고, 협의가 어려우면 어떤 방법을 검토할 수 있나요?

확인할 내용 이미 가진 급여·세금 자료와 최근 결제·이체 내역으로 생활비 부담자와 각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비는 대출 상환과 항목이 겹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이 답한 사실

- 상담 우선 주제: 당장의 생활비
- 동거·별거: 따로 사는 것을 생각 중이에요
- 주거비 외 생활비: 100만~250만 원
- 배우자와의 논의: 대화가 어려워요
- 보유했다고 답한 자료: 대출·채무 관련 · 급여·세금 관련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미확인 · 생활비 부담자 — 다음 달 생활비가 최우선이므로, 현재 누가 어떤 항목을 부담하는지 알아야 부족 가능성과 부담 조정의 출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확인 · 배우자 소득 확인 — 생활비 부담을 검토할 때 지급 능력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급여·세금 자료를 가진 사실만으로 배우자의 소득까지 확인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미확인 · 월 주거비 — 주거비 외 생활비만 알려져 있어 다음 달 주거 관련 지출은 미확인입니다. 대출 상환과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유 자료

- 보유 중인 급여·세금 관련 자료 (가지고 있다고 답함) — 자료가 누구의 어느 기간 소득을 보여주는지 확인해 생활비 부담 검토에 연결합니다. 배우자 소득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 본인 결제·이체 내역과 생활비 부담 약정 자료 (보유 여부 미확인) — 적법하게 보유한 내역이나 기존 약정이 있다면 항목별 부담자와 지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비 외 생활비 100만~250만 원을 주거비·대출 상환과 구분해 살펴봅니다.

이 쟁점에서의 질문

1. 이혼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다음 달 생활비가 걱정됩니다. 현재 부담 내역과 가진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협의가 어려울 때 어떤 방법을 검토할 수 있나요?
2. 현재 부담 내역과 제가 가진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다음 달 생활비 부담을 협의하거나 법원에 요청하는 방법 및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부부는 서로 부양·협조할 의무가 있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생활 비용을 공동 부담합니다. 이혼을 결정하지 않은 현재의 생활비 문제와 연결되지만, 부담 약정과 소득·실제 지출이 미확인이라 구체적인 부담액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거: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 민법 제833조(생활비용)

연결된 고객 입력 — 상담 우선 주제: 당장의 생활비

쟁점 2 / 4

자녀의 생활 유지와 돌봄·비용의 조정

검토 질문 따로 사는 것을 검토하면서 자녀의 생활과 공동 돌봄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하고, 이혼을 선택할 경우 어떤 양육 사항을 정해야 하나요?

확인할 내용 기존 돌봄 일정과 자녀 관련 지출 내역을 통해 주된 생활 장소, 평일·주말 돌봄, 이동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이야기된 내용은 기존 메시지 등에서 범위를 확인해 주세요.

고객이 답한 사실

- 자녀: 미성년 자녀가 있어요
- 자녀 연령: 초등학생 연령
- 현재 돌봄: 함께 나누고 있어요
- 자녀 생활에 관한 논의: 일부만 이야기했어요
- 동거·별거: 따로 사는 것을 생각 중이에요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미확인 · 자녀 거주 — 공동 돌봄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녀의 주된 생활 장소는 알 수 없습니다. 따로 사는 것을 검토할 때 생활 유지와 돌봄 조정의 기준이 됩니다.
- 미확인 · 유지하고 싶은 일상 — 함께 돌본다는 응답만으로 각자의 담당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기존 일정을 알아야 거주 변화가 돌봄과 비용에 미칠 영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유 자료

- 자녀 돌봄 일정과 자녀 관련 지출 기록 (보유 여부 미확인) — 기존 기록이 있다면 자녀가 주로 지내는 곳, 평일·주말의 담당 돌봄과 이동, 비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동 돌봄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살펴봅니다.
- 자녀 생활에 관해 나눈 기존 메시지·메모 (보유 여부 미확인) — 본인이 가진 기록이 있다면 일부 이야기된 내용 중 서로 뜻이 맞은 부분과 아직 정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별거 검토 단계의 생활 준비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 쟁점에서의 질문

1. 초등학생 연령 자녀를 함께 돌보고 있고 생활에 관해서는 일부만 이야기했습니다. 이혼 결정 전 생활 준비와 이혼을 선택할 때의 양육 협의는 어떻게 나누어 검토하나요?
2. 현재 공동 돌봄과 일부 논의된 내용을 기준으로, 이혼 결정 전 자녀 생활 준비와 이혼 시 필요한 양육 협의를 어떻게 구분해서 검토하면 되나요?

이혼 시 양육 협의에는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이 포함되며 자녀의 복리가 기준이 됩니다. 현재는 이혼 미결정 상태이므로 이 규정을 별거 준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향후 이혼을 선택할 경우의 검토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근거: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구간(월, 자녀 1명당 · 초등학생 연령 · 소득 미입력): 272,000원 ~ 2,349,000원 (최고 소득 구간 2,350,000원 이상). 출처: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연결된 고객 입력 — 자녀: 미성년 자녀가 있어요

쟁점 3 / 4

공동명의 집 대출과 사업 채무의 구분

검토 질문 공동명의 주택 대출과 걱정되는 사업 채무에서 계약상 채무자·보증인, 실제 상환, 향후 재산분할 검토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확인할 내용 이미 가진 대출·채무 자료에서 주택 대출과 사업 채무별 계약상 채무자·보증인, 사용 목적, 잔액, 납부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현재 납부 내역은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고객이 답한 사실

- 주택 명의: 공동명의예요
- 주택 취득 시점: 혼인 중
- 주택 취득자금: 두 사람의 소득·저축 · 대출
- 남은 주택 대출: 부담이 크게 남아 있어요
- 대출 상환자: 함께 갚아요
- 보유했다고 답한 자료: 대출·채무 관련 · 급여·세금 관련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미확인 · 자료 확인 범위 — 대출·채무 자료는 보유했지만 무엇을 포함하는지는 미확인입니다. 공동명의나 공동 상환만으로 주택 대출과 사업 채무의 계약상 책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 미확인 · 대출 잔액 확인 — 대출 부담이 크게 남았다는 응답은 잔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계약별 잔액을 확인해야 채무 규모와 향후 검토 범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유 자료

- 보유 중인 대출·채무 관련 자료 (가지고 있다고 답함) — 주택 대출과 사업 채무 중 포함된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계약상 채무자·보증인, 사용 목적, 잔액·납부일과 실제 상환 내역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주택 취득·명의와 취득자금 관련 자료 (보유 여부 미확인) —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명의·취득 시기와 두 사람의 소득·저축 및 대출이 사용된 내역을 살펴봅니다. 향후 이혼을 선택할 경우 재산분할 검토의 기초가 됩니다.

이 쟁점에서의 질문

1. 공동명의 집 대출은 함께 갚고 있고 사업 채무도 걱정됩니다. 제가 가진 대출·채무 자료로 각 채무의 계약상 책임을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2. 집은 혼인 중 두 사람의 소득·저축과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이혼을 선택한다면 집과 남은 대출, 사업 채무를 재산분할에서 검토하려면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나요?
3. 제가 가진 계약서와 상환 내역으로 주택 대출 및 사업 채무의 계약상 책임을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고, 이혼을 선택하면 추가로 무엇을 검토해야 하나요?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등 사정을 참작합니다. 혼인 중 두 사람의 소득·저축과 대출로 취득한 집은 이 검토와 연결되지만, 이 근거만으로 대출·사업 채무의 계약상 책임이나 분할 범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연결된 고객 입력 — 주택 명의: 공동명의예요

쟁점 4 / 4

외도 의심과 과거 폭언의 사실·자료 구분

검토 질문 확인되지 않은 외도 의심과 날짜가 불명확한 과거 폭언을 이혼 사유나 상대방 책임 검토에서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확인할 내용 이미 안전하게 보유한 메시지·메모 등이 있는지와 그 범위를 확인해 주세요. 정확한 날짜가 없으면 기억나는 시기·상황을 구분하고, 폭언의 내용·반복 여부와 외도 의심의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이 답한 사실

- 사건 경위를 알게 된 방식: 아직 의심·추정이에요
- 배우자와의 논의: 대화가 어려워요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주요 사건의 구체적 경위: 외도는 확인되지 않은 의심이며 과거 폭언의 정확한 날짜는 모름.
- 미확인 · 주요 사건 시점
- 미확인 · 자료 확인 범위

보유 자료

- 외도 의심·과거 폭언 관련 기존 메시지·메모 (보유 여부 미확인) — 이미 안전하고 적법하게 보유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직접 경험한 내용과 추정, 기억나는 시기, 폭언의 구체적 내용·반복 여부를 나누어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쟁점에서의 질문

1. 외도는 의심일 뿐이고 과거 폭언의 정확한 날짜도 모릅니다. 이혼 사유나 위자료 책임을 검토하려면 기억과 보유 자료에서 어떤 사실을 구분해야 하나요?
2. 외도는 의심이고 과거 폭언의 날짜도 불명확한데, 현재 진술과 보유 자료로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책임을 검토하려면 어떤 사실이 더 필요한가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됩니다. 외도 의심과 과거 폭언 진술은 관련 사실을 확인할 출발점이지만, 의심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하거나 폭언의 구체적 내용 없이 해당 사유 충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연결된 고객 입력 — 사건 경위를 알게 된 방식: 아직 의심·추정이에요

부록

근거 발췌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법령 · 자료 날짜 2026.03.17

연결된 쟁점: 외도 의심과 과거 폭언의 사실·자료 구분

관련 입력: 사건 경위를 알게 된 방식: 아직 의심·추정이에요

원문 보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No=0840&joBrNo=00&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법령 · 자료 날짜 2026.03.17

연결된 쟁점: 다음 달 생활비의 부담과 확보 가능성

관련 입력: 상담 우선 주제: 당장의 생활비

원문 보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No=0826&joBrNo=00&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민법 제833조(생활비용)

법령 · 자료 날짜 2026.03.17

연결된 쟁점: 다음 달 생활비의 부담과 확보 가능성

관련 입력: 상담 우선 주제: 당장의 생활비

원문 보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No=0833&joBrNo=00&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법령 · 자료 날짜 2026.03.17

연결된 쟁점: 자녀의 생활 유지와 돌봄·비용의 조정

관련 입력: 자녀: 미성년 자녀가 있어요

원문 보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No=0837&joBrNo=00&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법령 · 자료 날짜 2026.03.17

연결된 쟁점: 공동명의 집 대출과 사업 채무의 구분

관련 입력: 주택 명의: 공동명의예요

원문 보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No=0839&joBrNo=02&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부록

입력 요약

고객 입력 요약

혼인 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자녀: 미성년 자녀가 있어요

동거·별거: 따로 사는 것을 생각 중이에요

현재 거주 형태: 자가 주택

주택 보유 여부: 있어요

재산 파악 범위: 일부만 알고 있어요

현재 고민: 앞으로의 생활 · 집·재산·대출 · 아이의 생활 · 배우자와의 관계 ·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 외도·신뢰 문제 · 생활비·경제 문제 · 폭언·폭력·안전 문제 · 위자료·상대방 책임

배우자와의 논의: 대화가 어려워요

첫 상담 질문: 이혼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생활, 공동명의 집 대출, 사업 채무와 다음 달 생활비가 걱정됩니다. 외도는 의심일 뿐이고 과거 폭언은 있었지만 현재 즉각적인 위협은 없습니다. 상담에서 무엇을 먼저 정리할지 알고 싶습니다.

자녀 연령: 초등학생 연령

현재 돌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주택 명의: 공동명의예요

주택 취득 시점: 혼인 중

주택 취득자금: 두 사람의 소득·저축 · 대출

남은 주택 대출: 부담이 크게 남아 있어요

상담 우선 주제: 당장의 생활비

보유했다고 답한 자료: 대출·채무 관련 · 급여·세금 관련

자료를 가진 경위: 제게 이미 있는 자료예요

월 주거비: 잘 모르겠어요

주거비 외 생활비: 100만~250만 원

생활비 부담자: 잘 모르겠어요

자녀 거주: 잘 모르겠어요

자녀 생활에 관한 논의: 일부만 이야기했어요

재산·채무 종류: 부동산 · 사업체·지분 · 대출·채무

금액·명의 파악: 일부만 알아요

대출 상환자: 함께 갚아요

주요 사건의 구체적 경위: 외도는 확인되지 않은 의심이며 과거 폭언의 정확한 날짜는 모름.

사건 경위를 알게 된 방식: 아직 의심·추정이에요

질문 구성과 안내 문구는 조원상 변호사(법무법인 혜민 대표 변호사) 외 2인과 이상우 세무사가 검토했습니다.

이 문서는 입력하신 내용과 공개 법령·자료를 상담 준비를 위해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입력 내용과 가지고 있다고 답한 자료의 내용은 상담에서 함께 확인해 주세요.